

УДК 316.723

ББК 71.07

X12

Ха Дон Чжин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Россия

О. В. Чибисова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Россия

СОВРЕМЕННЫЕ КЛУБНЫЕ МОЛОДЁЖНЫЕ СУБКУЛЬТУРЫ

Данная статья изучает музыкально-танцевальные молодёжные субкультуры (фанк и хип-хоп), сформировавшиеся в прошлом веке и продолжающие существовать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В работе используются теоретиче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учёных и материалы интернет-сайтов. Автор приходит к заключению, что основная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музыкально-танцевальных субкультур содержится в их творческом и интегративном потенциале.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молодёжные субкультуры, танцевальная музыка, клубные танцы, внешний облик, идеология.

Ha Dong Jin

Komsomolsk-on-Amur, Russia

O. V. Chibisova

Komsomolsk-on-Amur, Russia

MODERN CLUB YOUTH SUBCULTURES

The article examines music and dance youth subcultures (funk and hip-hop) which were formed in the last century and which continue to exist to this day. It uses theoretical developments of scientists and materials of websites. It concludes that the main focus of the music and dance subcultures is contained in their creative and integrative potential.

Keywords: youth subcultures, dance music, club dances, appearance, ideology.

현대 클럽 청소년 하위문화

하동진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러시아,

올가 블라디미로브나 치비소바

콤소몰스크-나-아무레, 러시아

본 논문은 지난 세기에 형성되었고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 펑크족, 힙합과 같은 댄스와 관련된 청소년 하위문화들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를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의 많은 자료들과 학자들의 이론적인 연구들이 사용되었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댄스 하위문화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그들의 창조적인 활동과 통합성의 잠재적 능력에 있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주제어: 청소년 하위문화, 댄스 음악, 클럽 댄스, 외형적 모습, 이데올로기.

현대 사회에서 여가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개성의 표현 그리고 자아 정체성 형성과 확립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과는 분리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학자 알렉산드르 바트나수노프[Батнасунов, 2004]에 따르면 과거에 여가는 새로운 노동을 위한 보충적인 휴식의 수단이었지만 현재에는 노동이 여가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버렸다고 합니다. 그의 의견과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많은 여가 활동의 모습들이 부유층의 삶의 표식을 나타내고 모방을 위한 대상의 역할을 하면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엘리트적인 삶의 모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으로 밤에 클럽을 찾는 클러빙(Clubbing)도 이러한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따찌야나 아소비나[Асобина, 2015]는 클럽을 장소적으로 국한되고 밤에 이루어지는 여가 활동의 한 형태로 분석하면서 이 형태는 음악의 기호성을 바탕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해져 있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서로의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사회·문화적 상호 관계를 형성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클럽 문화는 젊은이들에게 성인들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의 형태를 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이들이 자립심과 독립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클럽 문화에 대한 관심은 가정으로부터 청소년들이 멀어지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는 클럽 문화 환경에서 그들이 부모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여가 활동뿐만 아니라 창조성과 자아 실현을 이룰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도 제공해줍니다[На, Chibisova, 2015, p. 209].

많은 학자들[Грязнов, Грязнов, Гилемханова, 2010]은 클러버(Clubber)를 밤의 클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고 클럽 음악을 이해하며 임의의 집단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아다홉스카야[Адаховская, 2008]는 서로 다른 접근법으로 두 가지의 클러버들의 유형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럽 생활의 연속성에 기초한 그녀의 첫 번째 유형학에서는 향후에도 클럽에서 여가 생활을 계속할 것이라는 클러버들의 «적극적인 부류»와 이에 대해 «무관심한 부류» 그리고 미래에는 클럽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클럽 내의 행동 양식에서 접근한 두 번째 유형학에서는 만취, 약물 남용, 싸움과 같은 행동을 일삼는 클러버들의 «폭력적인 부류»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일반적인 부류» 그리고 만취, 약물 남용, 싸움과 같은 행동에는 부정적이지만 우연적인 성관계를 추구하는 «낭만적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클러빙과 클러버의 본질에 대한 관점들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클러빙이 1970년대의 디스코(Disco) 열풍 때 생겨났으며 1980-1990년대에 디제잉(DJing)과 함께 발전하였기 때문에 클러빙을 음악과 댄스에 관련된 청소년 하위문화로서 연구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하위문화들의 스타일을 구분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댄스 음악은 매우 규격화된 시시하고 의미없는 하급의 대중 문화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발렌티나 코넨[Коенн, 1994]은 음악을 규정하는데 있어 최상의 음악은 클래식이고 다른 것들은 하급으로 차별을 두는 과거의 이원론을 부정하였습니다. 코넨은 전통적으로 구분된 음악의 두 가지 계급적인 분류인 클래식과 민요 말고도 세 번째 분류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밝히고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Electronic Dance Music)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무르 야스트렘스키[Ястремский, 2006]는 일렉트로닉 댄스 음악을 춤의 반주를 위한 전기 음향 장치들에 의해서 재생되는 음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댄스는 청소년 교제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을 결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댄스는 청소년들의 예술적 요구의 성격을 정하며 그들의 그룹적인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면서 상호 교제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Ха, Чибисова, 2015, с. 351].

클럽 댄스 음악에 포함되는 음악 장르에는 펑크(Funk), 디스코(Disco), 하우스(House), 테크노(Techno), 정글(Jungle), 일렉트로(Electro), 트랜스(Trance), 브레이크비트(Breakbeat), 덱스텝(Dubstep) 등이 있습니다. 클럽 댄스에는 펑크(Funk), 하우스(House), 리듬 앤드 블루스(R&B), 스트립 댄스(Strip-Dance), 테크토닉(Tecktonik), 고고(Go-go), 덱스텝(Dubstep) 등과 같은 장르들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펑크 음악은 미국 흑인 음악에서 기본이 되는 장르 중 하나입니다. 제임스 브라운은 펑크 음악의 선구자로서 1968년 히트곡 «Say It Loud, I'm Black And I'm Proud»을 발표해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 사건 이후 실의에 빠졌던 흑인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스타일의 펑크 음악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도록 하는데 기여하였고 «Funk»라는 단어에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인 기타리스트 조지 클린턴과 베이시스트 부시 콜린스는 피펑크(P-Funk) 스타일의

«Parliament-Funkadelic»와 «Bootsy's Rubber Band»라는 그룹을 결성하면서 다양한 펑크 음악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일(Unity)을 의미하는 제스처인 사인 오브 더 혼스(Sign of the horns)는 흑인 전사들이 자유를 위해 선택한 상징으로서 조지 클린턴의 음반 표지에 새겨져 있습니다. 펑크 그룹 «Parliament-Funkadelic»의 앨범과 공연들을 통해서 펑크 음악의 신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P-Funk mythology, 2016]. 예를 들면 스튜디오 앨범 «One Nation Under a Groove»에는 그룹 '펑카델릭'의 댄스 음악이 세상의 시름을 날려버린다는 펑크족(Funkateer)의 세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정력적인 사람들이 춤을 즐겁게 잘 출 때 펑카델릭의 펑크족이 되어 그들의 세계에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펑크 음악의 특징은 다양한 방식의 당김음(Syncopation)의 효과, 현란한 음질과 선명도 그리고 솔로 기법과 앙상블의 즉흥 연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에 펑크 그룹들은 다양한 형태의 일렉트로닉 악기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펑크 음악은 유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펑크 음악은 «펑크족»이라는 청소년 하위문화를 생산하였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나 사실들을 펑크 매니아들의 인터넷 사이트[\[Subject: What's a Funketeer?, 20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1974년 대학가에서 촬영된 젊은이들에 관련된 사진에 한 매니아가 펑크족 하위문화를 회상하면서 남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들을 만난 적은 없었지만 알고는 있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나의 이웃이었던

것 같다. 그 당시 나는 피츠버그 대학교 2학년이었고 나는 그들과 같은 외모를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나는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누군가를 본다면 곧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그들의 무리 속으로 초대를 했다면 나는 흔쾌히 응했을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흑백 차별이 없었는데 이는 수년 동안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펑크족이란 누구인가?”에 관한 주제는 하위문화의 관점에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펑크족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저는 나팔바지, 크리퍼 슈즈(Creeper shoes), 남성용 향수인 «English Leather», 아프로(Afro) 헤어 스타일, 거대한 귀걸이를 하는 외모에 흑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펑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하곤 합니다. 또한 저는 즐겁게 여가 생활을 하지만 자신들의 민족과 그 사회를 사랑하고 인종차별주의와 불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지켜낼 준비가 된 사람들이 펑크족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무미아 아부-자말(Mumia Abu-Jamal)의 사형 집행을 철회하라는 운동을 하고 있고 인종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시 잭슨(Jessy Jackson)은 맹렬히 비난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후자의 펑크족에 해당합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Bring the Family Back Together, 2015]에 데니 베이커(Denny Baker) 감독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인 «Funk Music 20th Century Box 1980»가 올라와 있는데 이 영화는 영국에서의 청소년 하위문화로서

펑크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실제로는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자신은 «Brickston Frontline»이라는 단체의 소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의 일원들이 어디론가 갔을 때면 개개인이 아닌 무리를 지어 행동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그들의 단체인 «Frontline»의 일원들이 밀리터리 룩(Military Look)을 입었었고 비슷한 유형의 단체들도 각각 자신들의 스타일로 복장을 입었는데 그들 사이에서는 경쟁이나 마찰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청소년 하위문화인 펑크족이 외모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펑크 음악에 의해 형성되고 큰 다민족적인 집단이 되어간다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1980년대 영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펑크족은 20세기 중반의 중요한 음악 스타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현재에는 정치적인 성격을 잃었습니다. 펑크 음악의 특징적인 요소들은 싱코퍼레이션이 많이 들어간 리드미컬한 음색이며 현대 댄스 음악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펑크 음악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며 «James Brown», «Aretha Franklin», «Paula Abdul», «Imagination», «Brand New Heavies», «Freak Power», «Earth, Wind & Fire», «Jamiroquai», «Maceo Parker», «Count Basic», «Incognito», «Prince», «Michael Jackson»과 같은 가수와 그룹들은 자신들의 음악 스타일로 음반을 만들었지만 펑크 음악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음악적으로 식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펑크 음악 중에서 오늘날 춤을 기반으로 하는 하위 장르는 재즈 펑크(Jazz-funk)이며 쇼 비지니스(Show Business) 세계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재즈

펑크는 «Beyonce», «Britney Spears», «Madonna», «Lady Gaga»와 같이 유명한 팝가수들의 라이브 공연과 뮤직 비디오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재즈 펑크는 많은 젊은 남녀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댄스 음악의 장르입니다. 재즈 펑크 댄스는 다양한 장르의 춤을 접목하고 있는데 특히 힘있는 손동작과 미끄러지는 듯한 스텝이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날 펑크족들은 몸에 딱 달라붙는 나시티와 넓은 바지 또는 레깅스를 귀걸이, 팔찌와 함께 즐겨 입고 그 위에 잠바나 밝고 화려한 스카프를 걸칩니다.

힙합 음악은 1970년대 뉴욕에서 만들어졌고 랩과 빠른 리듬의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듬 앤드 블루스(Rhythm and Blues), 소울(Soul), 재즈(Jazz), 록 음악(Rock music), 레게(Reggae)와 같은 장르는 힙합 음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힙합 음악은 «클러빙» 하위문화에 종속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 문화 속에 사실상 동화되어 있습니다. 발레리이 루코브[Лыков, 2005]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도구들의 대중화는 힙합 문화의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고 이것은 디제잉(DJing)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랩은 아프리카 그리오들(Griots)의 문화적인 전통에 기원하며 미국 개신교 흑인들의 빠르고 율동적인 기도와 설교의 발음법이 차용되었습니다. A. Jordan [Jordan, 2009]은 «Jay-Z», «Nas», «T.I.», «Lil' Flip»과 같은 랩퍼들의 일대기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이 랩퍼들의 가난과 가정 문제, 도발과 위협에 대한 투쟁을 기록하면서 그 출처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 노래 가사의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작가는 원래 힙합의 이데올로기가 신체적 폭력이나 경쟁, 남성주의, 계급적인 투쟁과 같은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저항 정신에서 기초하였지만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적개심»에 주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이 랩퍼들이 피동의 역할로서 침묵하는 대중의 원하는 바와 요구를 음반에 적극 수용했었기 때문에 음악적 성공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힙합 하위문화의 일원인 T. Kirkemo [Kirkemo, 2007]는 갱스터 랩(Gangsta rap)이 흑인 슬럼가인 게토(Ghetto)에서의 범죄 세계에 관련된 노래 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띠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는 하위문화로의 애착으로 몇 가지의 레벨이 존재한다고 보고 각 레벨에서 지지자들이 그들의 하위문화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제기에 대해 자명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의견에 따르면 사회적인 랩퍼들이 가장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범죄와 폭력의 혐오심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종교, 문화, 경제 문제를 조명하거나 서민들의 권리들을 위한 투쟁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랩퍼들의 작품은 단지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해 사람들의 높은 지식을 요구하며 관심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며 랩퍼들은 청중들 스스로가 의견이나 평가를 하도록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힙합 문화 형성 시기에 뉴욕 거리에는 많은 비보이들(B-boys)의 팀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댄스 배틀(Dance battle)을 했었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퍼졌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외에도 힙합 문화에는 패션과 슬랭이라는 다른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힙합 문화는 거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거리 패션의 왕»이라는 이름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힙합 매니아들은 유행에 따라 패션을 자주 바꾸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외형적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짧고 넓은 바지, 운동화, 야구 티셔츠, 비니(Beanie)등을 주로 착용합니다. 힙합 슬랭(Slang)은 힙합 문화의 발전에 따라 자주 변합니다. 그 중에서 랩퍼들이 자주 쓰는 슬랭은 «True»(실제 랩퍼), «Rapcore»(보컬에서 랩을 사용하는 록음악의 하위 장르), «Live»(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무대 공연), «Screw»(연주 속도를 늦추는 것)이고 디제이들이 자주 쓰는 슬랭은 «Device»(특정한 장소에서의 연주 장비나 도구), «Pitch»(음의 높이나 속도), «Scratch»(손으로 디제이 믹서의 조그 휠을 긁어내어 얻는 음향 효과나 그 행동), «Mix»(여러 음반을 섞어 노래가 연속되도록 만든 앨범)입니다.

오늘날 힙합 문화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있는데 «세계 힙합 댄스 경연 대회»가 좋은 예입니다[World hip-hop dance championship, 2016]. 2016년 8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15번째로 열린 이 대회에서는 약 50개국의 힙합 댄스 팀들이 참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필리핀,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의 힙합 팀들이 높은 점수를 받고 상위권에

입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회 기간에는 여러 힙합 레전드와의 토론이 있었고 유명한 댄서들이 «Urban Moves» 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했으며 각국 댄스 경연 대회 참가들과의 다양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축적된 사회적인 경험을 습득하는데 있어 클럽 하위문화를 통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전을 통하여 사회적인 관계의 체계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현실 도피를 위한 유희적이고 쾌락적이라는 매우 부정적으로 하위문화를 보는 시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위문화가 지니는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특징에 의한 혁신적인 문화 잠재력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 하위문화는 복잡한 체계에 의해서 스스로 조직되는 다른 청소년 하위문화와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며 후대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писок

1. Адаховская Е. А. Ночные клубы как форма 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досуга: 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 анализ: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социол. наук: 22.00.06 / Е. А. Адаховская. Екатеринбург, 2008. 24 с.
2. Асобина Т. В. Влияние досуга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стратегии жизни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дис. ... канд. философских наук: 09.00.11 / Т. В. Асобина. Пятигорск, 2015. 160 с.
3. Батнасунов А. С. Досуг как сфера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и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йской молодежи: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социол. наук: 22.00.06 / А. С. Батнасунов. Ставрополь: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2004. 24 с.
4. Грязнов А. Н., Грязнов И. М., Гилемханова Э. Н. Клуббинг как новая форма зависимости / А. Н. Грязнов, И. М. Грязнов, Э. Н. Гилемханова // Казанск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журнал. 2010. № 1. С. 117–122.
5. Конен В. Д. Третий пласт. Новые массовые жанры в музыке XX века. М., 1994. 160 с.

6. Луков В. А. Хип-хоп культура // Знание. Понимание. Умение. М., 2005. № 1. С. 147–151.

7. Ха Д. Ч., Чибисова О. В. Поп-музыка как механизм конструирования жизненного стил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метросексуалов / Д. Ч. Ха, О. В. Чибисова // Science Time. 2015. № 10 (22). С. 350–355.

8. Ястремский Т. С. Танцевальная электронная музык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рубежа XX–XXI веков: автореф. дис. ... канд.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17.00.09 / Т. С. Ястремски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006. 29 с.

9. *Bring the Family Back Together*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www.blynkt.com/blynkt-blog/bring-the-family-back-together>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10. Ha D.J., Chibisova O.V. South Korean “new generation” of the 1990s as a youth subculture. В сборнике: Приоритеты мировой науки: эксперимент и научная дискуссия Материалы 9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2015. С. 208-211.

11. Jordan, Augustus W. III, Ideological and narrative structures of Hip-Hop music: A study of selected Hip-Hop artists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digitalcommons.auctr.edu/cgi/viewcontent.cgi?article=1607&context=dissertations>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12. Kirkemo, T. Aspects of hip hop discourse: constructing reality, ideology and identity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s://www.duo.uio.no/bitstream/handle/10852/25510/thomas.pdf?sequence=2&isAllowed=y>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13. *P-Funk mythology*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s://en.wikipedia.org/wiki/P-Funk_mythology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14. *Subject: What's a Funketeer?*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www.soulpatrol.com/funk/funk_pep.htm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15. *World hip-hop dance championship* //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URL: <http://www.hiphopinternational.com/world-hip-hop-dance-championship/> (дата обращения: 10.10.2016).

References

1. Adakhovskaya E.A. (2008). Nightclubs as a form of organized leisure activities: a sociological analysis // Thesis for a candidate degree in Sociology / Ekaterinburg. (In Russian)

2. Asobina T.V. (2015). The impact of leisure on the formation of the strategy of the Russian youth life // Thesis for a candidate degree in Philosophy / Pyatigorsk. (In Russian)

3. Batnasunov A.S. (2004). Leisure as a sphere of life of modern Russian youth // Thesis for a candidate degree in Sociology / Stavropol'. (In Russian)

4. Gryaznov A.N., Gryaznov I.M., Gilemkhanova E.N. (2010). Clubbing as a new form of addiction // Kazan Pedagogical Journal. № 1. P. 117-122. (In Russian)
5. Konen V.D. (1994). The third layer. New massive genres in music of the XX century. M., 160 p. (In Russian)
6. Lukov V.A. (2005). Hip Hop Culture //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 // M., №1. P.147-151. (In Russian)
7. Ha D.J., Chibisova O.V. (2015). Pop music as a mechanism for the construction of South Korean metrosexuals' lifestyle. // Science Time. № 10 (22). P. 350-355. (In Russian)
8. Yastremskij T.S. (2006). Dance electronic music in the artistic culture of the turn of XX - XXI centuries / Thesis for a candidate degree in Arts / Sankt-Peterburg. (In Russian)
9. Bring the Family Back Together <http://www.blynkt.com/blynkt-blog/bring-the-family-back-together> (access date: 10.10.2016).
10. Ha D.J., Chibisova O.V. (2015). South Korean "new generation" of the 1990s as a youth subculture. // The priorities of the world science: experiments and scientific debate. Materials of the 9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P. 208-211.
11. Jordan, Augustus W. III, Ideological and narrative structures of Hip-Hop music: A study of selected Hip-Hop artists. <http://digitalcommons.auctr.edu/cgi/viewcontent.cgi?article=1607&context> (access date: 10.10.2016).
12. Kirkemo, T. Aspects of hip hop discourse: constructing reality, ideology and identity <https://www.duo.uio.no/bitstream/handle/10852/25510/thomas.pdf?sequence=2&isAllowed=y> (access date: 10.10.2016).
13. P-Funk mythology https://en.wikipedia.org/wiki/P-Funk_mythology (access date: 10.10.2016).
14. Subject: What's a Funketeer? http://www.soul-patrol.com/funk/funk_pep.htm (access date: 10.10.2016).
15. World hip-hop dance championship <http://www.hiphopinternational.com/world-hip-hop-dance-championship/> (access date: 10.10.2016).